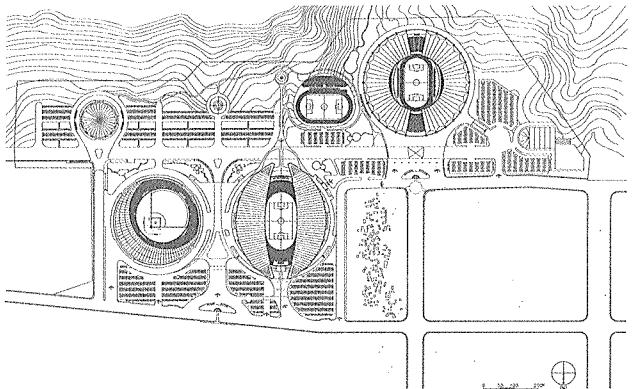


조감도

# 대구축구전용구장

Taegu Soccer Stadium

대구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에 대비함은 물론 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코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이상건축(강철희)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7월 19일 발표했다. 총 5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엠앤디건축(이각표)안이, 기작으로는 유신건축(김지덕)안과 한국종합건축(표상권)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 한다.



배치도

## 당선작

### 이상건축(강철희)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화동 대구 대공원  
내  
건축면적 / 42,361m<sup>2</sup>  
연면적 / 99,354m<sup>2</sup>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규조 / • Stand : P.C  
• Stand 하부 : R.C  
• 지붕 : 철골트러스 위 Velaflon 시트  
수용인원 / 7만7백28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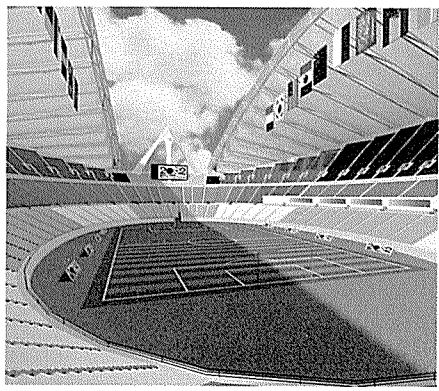
이 경기장은 대구도심의 남동 측 10km권내 대구대공원내(계획 중)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산 간 25번 국도가 부지인근을 통과하고 있으며, 약 6km권내에 경부 고속도로를 동대구 IC가 위치하여 있고, 8km권내에 동대구역이 있어 경부간 주요 간선교통과 연계되어 있다.

현재 계획지에 인접하여 신설 김해 고속도로 및 70m, 5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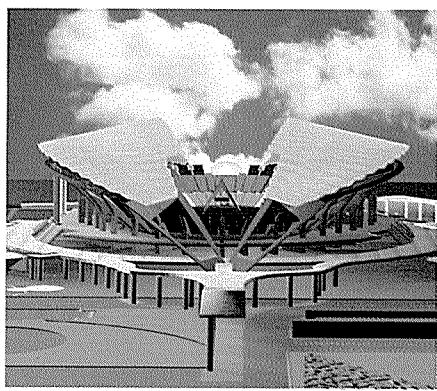
이 계획경기장은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외수영장과의 중심역할로서 축구전용구장(국제규격 : FIFA 규정)의 종합 Master Plan 계획으로서 해외에

서도 드문 규모의 경기장으로(수용인원 : 7만명) 대구공원내에 대덕산을 비롯한 쌍고지가 대지의 남측에 접하여 위치해 있고 반대 남측은 광활한 평지조건에 따라 경기장들은 배후 쌍고지에서 비롯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형태로 거대 인공구조물에 의해 자연이 압도됨으로 야기되는 시각적 공포감을 해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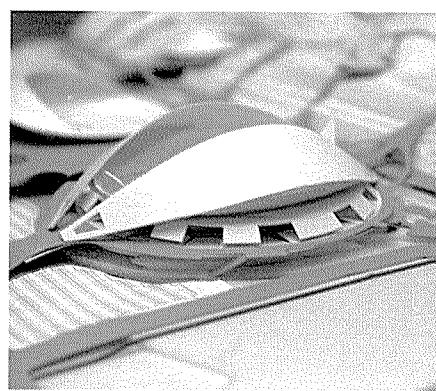
대지내의 공간구조 패턴은 자연과 인공의 선이 교우하여 조화되도록 하여 인공과 자연의 결합을 표출하였고, 자연에서 비롯된 집중력의 집적으로 긴장감이 발현하여 축선을 형성, 배치의 틀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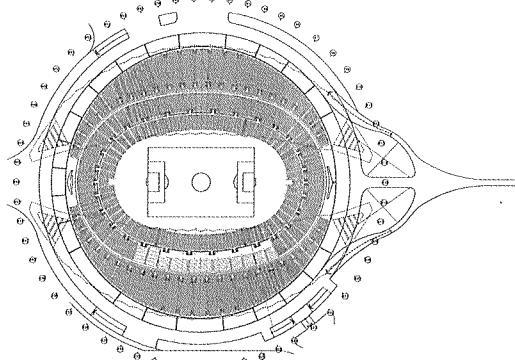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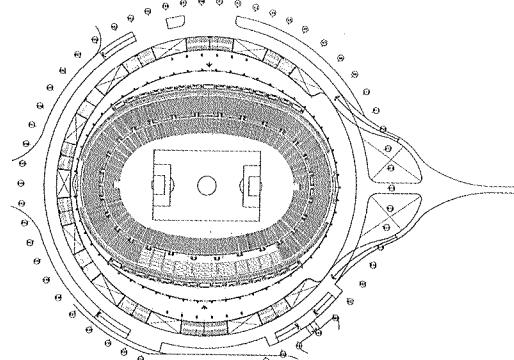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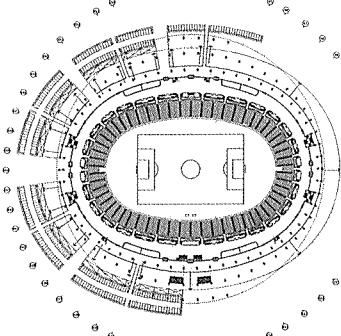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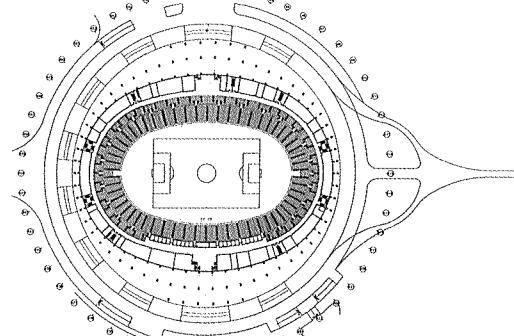
Level +120.3 평면도



Level+87.7 평면도



Level+74.5 평면도



Level+80.5 평면도

이 대지기능의 성격이 일시적 불특정 다수가 만나고 모이고, 참여 회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간이 요구되며 이의 복합 활용을 위한 기능의 입체적 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7만728명의 수용인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람석은 2개의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스탠드는 2개의 단으로 구분하였다.

또 귀빈석과 보도석은 경기장 서측 정면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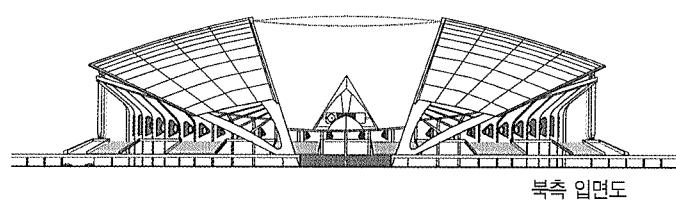
좌석수는 전체 좌석 중 관람객 하부스탠드 36,652석, 상부스탠드 30,872석으로 총 67,524석

이며, 이외에 귀빈석 964석, 보도석 2,008석, 장애인석 232석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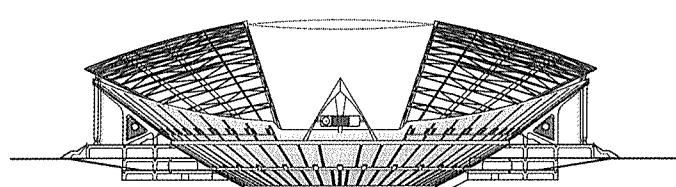
좌석의 구성은 관람효율을 고려하여 동서측면에 집중 배치하였다.

서측 스탠드 중앙에 기자석 1,464석을 확보하고, TV · Radio 중계를 위한 공간은 중앙부 남측에 3석 1조로 180조 540석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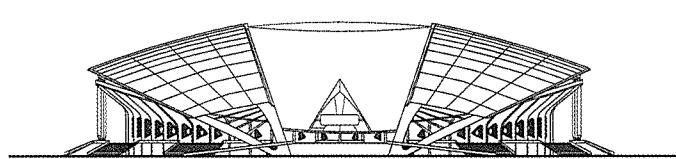
보도진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방송, 보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공간확보, 기능적 동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북측 입면도



횡단면도



동측 입면도